

소록도, 세상과의 동행 시작됩니다

벽화 프로젝트 목표액 3천만원 초과 달성

최고 모금액 기록 …110m 작품 제작 돌입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도, 세상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려는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첫걸음을 막진 못했다. 세상과 '아름다운 동행'을 펼치려는 소록도 사람들을 도우려는 은정의 손길로 '소록도 응벽 벽화 프로젝트'의 제작비가 목표액을 채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일 '소록도 응벽 벽화 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추진한 결과, 모금 목표액인 3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 후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문화

예술위원회는 벽화 제작을 위한 제작비 3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17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 사이트(fund. arko.or.kr)에서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 마감일인 이날 오후 5시까지 198명이 참여해 모은 후원금은 3302만 8218원. 목표액의 110%에 이르며 자정까지 이어질 경우 후원금액은 더 들어날 전망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미만 후원한 국민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5만~30만원 미만 기부자는 62명으로 뒤를 이었다. 30만원 이상 기부자도 22명에 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품 제작은 종합한 박대조 작가는 '작품에 들어갈 소록도 주민·환자 40여명의 사진을 대상으로 1월까지 스케치 작업을 거친 뒤 2월부터 회화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참여 작가를 선정하고 4월까지는 벽화 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인 가족이 20만원씩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남포미술관의 기획으로 진행됐던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응벽 벽화 프로젝트'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진행했던 18개의 '크라우드 펀딩'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번 성공으로 '최다 모금 프로젝트'라는 뜻깊은 기록도 세우게 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보경 예술나눔부 과장은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여준데, 추진 주관 단체인 남포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곽형수 남포미술관장도 "2개월 남짓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작품 의도를 소개하고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차 계획이 실현되지 못해 소록도 주

민·환자들이 실망할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성공으로 벽화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품 제작은 종합한 박대조 작가는 '작품에 들어갈 소록도 주민·환자 40여명의 사진을 대상으로 1월까지 스케치 작업을 거친 뒤 2월부터 회화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참여 작가를 선정하고 4월까지는 벽화 작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포미술관은 작품 제작이 완료되면 소록도병원 개원일(5월 17일)에 맞춰 작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소록도 응벽 벽화 프로젝트는 소록도병원 내 길이 110m짜리 응벽에 소록도 주민과 한센 환자들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대형 벽화(높이 3m)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김지기자 dok2000@

전남테크노파크 잇단 감사에 울상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TP)가 올해 초 지식경제부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은 데 이어, 내년 초 감사원 감사까지 밟을 쳐지에 놓였다.

17일 전남TP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최근 지역TP의 인적·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18개 TP 가운데 권역별로 4곳을 지정해 감사원 감사를 청원했다.

감사 대상은 전남을 비롯해 경북, 인천, 대전TP 등으로, 감사청원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들 4개 TP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과 장비 구입, 위탁과제,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TP는 이 감사 이후 지난 9월에 진행된 전남도 자체 감사에서도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 등 19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현지 시정되거나 지도 처분됐고, 이후 행정사무감사도 받았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 설립된 전남 TP는 생물, 신소재, 조선, 문화관광 등을 특성화해 신생 지역기업의 창업, 보육·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은 700억원 규모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최종 심의 27일로 연기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최종 심의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27일로 심의 일정을 변경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방대한 국립공원 면적을 심의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의 대표 명산인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덮밥인 대구 등에서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요정 손연재 광주U대회 홍보대사 위촉

'리듬체조 여성' 손연재(18·시즌) 가 2015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홍보대사를 맡는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의 U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이날 위촉식 후 시청 1층 로비에서 팬사인회 등 다양한 축

사행사도 열 계획이다.

손연재는 U대회 홍보대사 위촉식 후 각종 국내 외 행사에 참가해 광주 U

대회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게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나라 공무원 수 내년 100만명 넘을듯

내년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대선후보는 공통으로 차기 정부에서 경찰인력 최소 2만명을 포함해 공공인력을 대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정권교체 초기에 변화가 많아서 내년에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전 신임 사장에 조환익 前 산자부 차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으로 조환익(62·사진) 전 산업자원부 차관을 선임했다.

조 전 차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 통상산업부 공보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등을 거쳤다.

/연합뉴스

전남도 "깎아달라" vs FOM "한국만 인하 못해"

F1 개최권료 팽팽한 줄다리기

500억원에 달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권료 재협상에 나선 전남도와 F1 운영사인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700억원대 누적 자리를 기록 중인데, 천문학적인 개최권료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 전남도는 한 푼이라도 깎아려고 하고, FOM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지난주 F1 조직위

이개호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영국

FOM 본사를 찾아 베니 에클레스턴(Bernie Ecclestone) 회장과 1차 면담을 갖고, 개최권료 할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현재 개최권료를 계속 지급 할 수 없고, 이를 고집한다면 남은 대회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남도의 입장과 베니 회장은 "현 상태에서 한국만 할인해 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F1을 치르는 20여 개국과의

형평성 때문에 한국만 단독으로 할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FOM측은 전남도에 한국 F1 대회의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남도는 추후 협상을 지속하면서 개최권료를 할인받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FOM과의 재협상 끝에 개최비 중 TV 중계권료, 원천세, 10% 할증 등 230억 원 가량을 면제하는데 합의했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투표 할인마켓' 1000호점 인증식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인 '투표하고 할인받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조선대 기숙사 내 커피숍에서 '투표 할인마켓' 1000호점 인증식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김치버스' 400일 5만km 월드투어 마치고 귀국

오늘 광주시청서 환영행사

"광주 김치의 우수한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광주김치 맛' 홍보를 위해 김치요리사 3명을 태우고 출발한 '광주김치버스'가 400일간의 월드투어를 마치고 귀국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류시형(30)·김승민(30)·조석범(26)씨 등 경희대 조리과 학생 3명은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0일간 월드투어를 마쳤다.

이들은 12월 19일 광주 김치버스를

에 첫 입장한 이후 시베리아 횡단을 거쳐 유럽에서 8개월, 북미대륙에서 4개월을 머물렀다.

김치버스는 광주김치 400kg을 공수받아 세계 각국 대학과 조리학교,

축제장, 공원 등에서 53차례 시식행사와 강연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서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고,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도둑을 맞기도 했다. 김치버스 차 유리창이 깨지고, 카메라와 노트북까지 젖어들어도 견뎠다.

김치버스팀은 400일간의 여정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제2기 김치버스 팀 운영 계획이다. 김치버스팀은 "400일간의 월드투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과 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금맥을 캐내라!

금거래 비즈니스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법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 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

울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에서도 죽한끼 대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과 안에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본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헌신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후회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승과는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수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민수 대기!

경천동지할 비슬인(천문 자민수로) 수심법을 요약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과하게 안내함. 역사과 풍수지리·철학의 길 기초부터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자금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곰탕의 침맛
정성을 다하여 우려낸 육수
정갈한 밀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소쇄원 주차장
진자금탕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삼성카드 9,000,000원	1,880